

변신의 마술사로 살아야 한다

朴 東 圭

〈서울대학교 교수, 국문학과〉



■ 약력

- ▲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과 졸업. 문학박사
- ▲ 월간詩誌「심상」 편집고문
- ▲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현)
- ▲ 저서 : 「한국소설의 성격유형 연구」,
「현대한국소설의 분석적 비평」,
「전후대표작품 분석」,
수필집「별을 밟고 오는 영혼」,
「당신이 고독할 때」등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이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때가 있다. 그것은 지금의 순간이 불만스럽거나 고통스러울 때 뿐만 아니라 허술하게 살아온 과거에 대한 자책의 마음에서 떠올릴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러니 인간의 삶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오히려 과거나 현재의 삶에 대한 회한이 깊을 수록 다가올 삶에 대한 명철한

운영만이 단선케도를 달려야 하는 인간에게는 삶의 회한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다가올 삶에 대한 명철한 운영을 위해서 가져야할 준비로써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며칠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갔을 때 일이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한적한 주택가를 걷다가 깜짝 놀랐다. 그것은 모든 주택의 거실이 길을 향해 환하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남이 거실을 들여다 보기를 기다리듯이 거실을 밝혀놓고 창을 가리지 않은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거실을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은 그들의 오래된 관습이다. 그러나 나에게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집안은 환하게 남에게 보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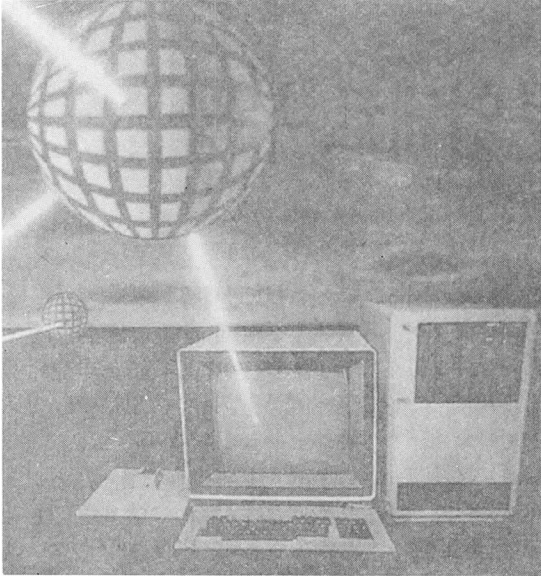
나는 거실이 환하게 다 보이는 헤이그의 주택가를 거닐면서 우리의 관습과 다른 삶의 모양을 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풍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 같은 것이 바로 나를 쳐다보게 하는 동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왔을 때 거리를 휘감고 있는 짙은 안개를 만나는 순간 아침 안개속을 달려 학교로 뛰어가야 했던 지나간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거실을 열어 놓고 사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을 비쳐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아가 비쳐지는 거울을 찾아야 비로소 현재적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적 삶을 바라봄으로써 그 의미체를 엮을 수 있는 하나의 집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아침에



집을 나와 하루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 일상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 일상의 단위가 묶여져서 삶의 총체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몇년전인가 이태리의 나폴리를 갔을 때였다. 나폴리 바다에서 건져올린 조개로 카메오라는 장신구를 만드는 집에 들른 적이 있다. 카메오 상점에 들어섰을 때 한 늙은 숙련공이 조개를 빚어 영롱한 조각을 다듬어내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분홍색 조개가 값비싼 보석의 장신구로 변하는 과정을 살피다가 우연히 늙은 숙련공의 손을 보았다. 조개를 깎기 위해 잡은 손가락이 마치 말뚝같이 기형적으로 굵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굳은살이 박혀 칼을 잡기 좋게 변형까지 되어 있었다.

나는 카메오 상점을 나오면서 늙은 숙련공의 손가락을 떠올렸다. 하루 하루가 누적되어 이루어진 변형된 손가락은 늙은 숙련공의 살아온 삶, 그 자체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상의 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삶의 의미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벽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카메오의 늙은 숙련공의 조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나뭇가지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손이 변형되도록 그 일에 매달려 지날 수 있었던 보람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상의 지표가 가슴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지표는 요란하게 세상이 다 알아주는 명성의 세계가 아닌, 그 일 자체가 자기만의 세계라는 장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인의식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기능이 되는 것이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주어진 자신의 삶을 이 일에 담고 이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증거를 남기려 한다는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현재적 삶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인간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비시켜서 자신의 현실적 모습을 찾아내고 그리고 현실적 모습에 의미부여를 하고 이를 다시 삶의 종국적 가치로 승화시켜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봄이 오면 땅속에 숨었던 이름모를 풀들이 얼굴을 내민다. 누구도 눈속에 숨어있던 풀들이 생명을 지니고 추운 땅속에 숨어있으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풀은 봄을 맞아 고개를 내밀듯이 삶은 언제나 깊은 땅속일 수 만은 없다. 하루를 땅속에 봄날이 오면 세상에 고개를 내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풀이어야 한다. 생명은 바로 인생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끝없는 변신의 마술사가 되어야 한다. 이 변신은 현재적 삶을 냉철하게 바라다봄으로써 자신의 삶이 바르게 가는가를 살펴보고 어긋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표에서 이탈해가는 것을 바꾸는 변신의 지혜야말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린 날 개울에서 가재를 잡아본 추억이 있는 이는 가재가 용케도 바위틈에 숨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위틈에 숨은 것이 그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길임을 본능적으로 터득한 것이다.

인간은 세속적 욕망에 매달려 가재처럼 이기적 변신을 하는 경우에는 참다운 삶을 찾을 수 없지만, 또 다른 가재의 모습처럼 살아있음의 증거를 찾아 스스로 생존적 가치를 향해 변신의 마술사가 되는 일이 바로 삶의 총체적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